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탄산음료, 설탕, 라벨, 비만, 규제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탄산음료, 설탕, 라벨, 비만, 규제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6. 4. 1.
뉴질랜드 비만을 심각,
강력한 조치 필요

2016. 4. 14.
뉴질랜드, '설탕세'로
찬반여론 팽팽

2016. 9. 1.
탄산음료에 경고부착,
실효성 높아

2016. 9. 15.
탄산음료의 설탕 라벨
고려해야

핵심이슈
도출

“뉴질랜드, 탄산음료에 경고문 부착 제도 도입 고려”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뉴질랜드, 탄산음료에 경고문 부착 제도 도입 고려

2016년 9월 1일, 뉴질랜드 일간지 NZ Herald는 담배와 같이 탄산음료에도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것이 비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NZ Herald는 뉴질랜드의 탄산음료 규제에 관한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였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진은 뉴질랜드의 젊은 소비자들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20% 인상된 제품보다도 경고 문구를 부착한 제품에 훨씬 높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세'를 부과한 것보다 경고문 부착이 탄산음료 소비 감소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

최근 설탕이 다량 함유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 노동당(Labour)은 내년 선거에 대비하여 설탕 규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설탕세'에 대한 국제적인 찬반논란이 지속되면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고문 부착 등의 효과적인 정책을 고민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의 자료에 따르면, 2~14세 소아비만 인구는 무려 85,000명에 이르며, 이 어린이들의 75%가 만성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비만의 주요 원인인 탄산음료는 영양분이 없을 뿐더러 설탕 함량도 높아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이다.

다량의 설탕이 함유되어 있어 비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경고문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고 있는 비만율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현재, 뉴질랜드의 설탕 규제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뉴질랜드는 OECD 국가들 중 비만을 3위 국가로, 설탕 규제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비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탄산음료 기준 규제가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탄산음료 수출업체들은 포장 단계에서 추가적인 공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의 규제변경 공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뉴질랜드 식품표준청(FSANZ)의 규제변경 공지는 하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foodstandards.gov.au/Pages/default.aspx>)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